

“공격수가 수비수를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골 넣겠는가”

[동아시안컵]

공격수와 수비수가 1대1 상황이 되면 유리한 쪽은 아무래도 공격수다. 공을 소유한 채 앞으로 전진 하는 선수를 뒷걸음질 치면서 막는다는 것은 스피드에서도 또 방향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도 수비수들이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수준 높은 공격수들이 공을 잡으면 수비수들이 반드시 서로 협력하는 것도 1대1로는 힘이 드는 까닭이다.

이런 축구의 기본적인 속성과 함께 공격수에게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저돌성, 과감함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격적 움직임이다. 공격수라면 적어도 1대1은 자신이 풀어낼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어야 한다.

한국 스트라이커 계보 높은 곳에 위치한 이희택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 과거 “도대체 수비수 1명을 제대로 제칠 수 있는 공격수가 없다”고 탄식을 뱉으면서 “공격수가 수비수를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골을 넣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축구는 11명이 서로 싸우는 단

벤투호, 홍콩과의 1차전에서 2-0 승리...세트피스로만 2골

최약체 상대 고전 가장 큰 이유, 1대1 싸움 이겨내지 못한 탓

체 스포츠지만, 1대1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축구인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한국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컵에서 우승을 노리는 벤투호가 최약체 홍콩과의 1차전에서 고전했던 가장 큰 이유도 공격수들이 1대1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한 탓이 크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11일 오후 부산 아시안드주경기장에서 열린 홍콩과의 2019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남자부 1차전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전반 막판 황인범의 직접 프리킥, 후반 36분 코너킥 상황에서의 나상호의 추가 득점 등 세트피스로 2골을 넣었다.

어느 팀이든 부담스럽고 힘든 대회 1차전이었기에 가장 중요했던 '결과'를 챙겼다는 것은 소기의 성과다. 하지만 내용은 답답했

던 경기다. 물론 이날 홍콩이 시작부터 끝까지 기본적으로 8-9명의 선수들이 수비에 초점을 맞추는 밀집수비를 펼쳤고 그런 질서를 뚫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그래도 아쉬움은 남았다.

이날 대표팀이 들고 나온 밀집수비 타개책은 빠르고 정확한 패스워크로 흔들겠다는 복안이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움직임이 공보다 빠를 수는 없으니 패스가 여러 차례 오가면 수비진에는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확한 패스'라는 전제가 깔려야 한다.

그러나 이날 대표팀은 선수 구성이 크게 바뀌었고 손발을 맞추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조건과 함께 정교함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다. 측면에서의 크로스 역시 원하는 수준으로 박스에 투입된 게 손에 꼽을 정도다. 이렇게 답답할

때 필요한 것이 개인전술이다.

공을 잡고 자신의 마크맨을 뚫어내서 공간을 확보한다면 스스로 슈팅까지 가져가거나 자신을 막으로 달려드는 또 다른 수비수로 인해 동료에게 찬스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우리 선수들의 돌파는 성공확률이 크게 떨어졌다. 거의 대부분의 돌파가 상대 수비에 걸렸다. 실패가 늘어나자 시도도 떨어졌다.

수비수를 향해 달려들지 못하고 옆으로 이동하니 수비수도 같이 따라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애써 측면까지 벌였다가 다시 안으로 이동하니 중앙의 밀도만 높아졌을 뿐이다. 후반 들어서서는 그래도 돌파 빈도가 늘어났으나 여전히 성공률은 떨어졌다.

결과적으로 이날 한국은 홍콩의 밀집수비를 뚫지 못했다. 2골 모두 세트피스였다. 여기서 칭찬할 점도 있다. 상대가 수비에 집



11일 오후 부산 연제구 아시안드주경기장에서 열린 2019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대회 대한민국과 홍콩의 경기 후반전 나상호가 드리블을 하고 있다. 지난 2003년 1회 대회 우승을 포함 총 4차례 정상에 오른 남자축구대표팀은 동아시안컵 최초 3연패에 도전한다.

중할 때 효과적인 득점 방법은 상대 위험지역 근처에서 파울을 얻어내 세트피스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그 방식으로 득점해 승리했다는 것은 박수를 보낼 일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또 밀집수비에 애를 먹었던 경기다. 특히 여전히 개개인의 돌파는 한숨이

나오는 수준이었다는 것은 지적이 불가피하다.

뒷걸음질 치는 수비수가 두려워 뒷걸음질 친다면 앞으로도 계속 고전할 수밖에 없다. 대표팀은 2020년에도 약체들과 아시아 지역 2차예선을 치러야 한다.

뉴스1

홍콩전 부상 김승대 6주 진단...동아시아컵 중도 하차

규정상 대체 선수 발탁할 수 없어



홍콩과의 2019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1차전에 선발 공격수로 출전했다가 상대 골키퍼와 충돌해 부상을 입은 벤투호의 공격수 김승대가 잔여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오전 “검사 결과 김승대가 우측 늑골 미세 골절 및 폐 타박상으로, 6주간 안정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면서 “금일 오후 대표팀에서 소집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대는 11일 오후 부산 아시안드주경기장에서 열린 홍콩과의 1차전에 선발로 출전했다가 큰 부상을 입었다.

김승대는 전반 37분 홍콩 문전으로 향하던 공을 소유하기 위해 달려들던 과정에서 상대 골키퍼와 크게 충돌했다. 한동안 고통을 호소하며 일어나지 못하던 김승대는 결국 들것에 실려서 필드 밖으로 나갔고 곧바로 이적협과 교체아웃됐다.

대표팀과 김승규 모두에게 큰 약재가 아닐 수 없다. 대표팀은 새로운 선수로 빈자리를 메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대한축구협회는 “대회규정에 따르면 첫 경기 6시간 전까지만 부상 선수 교체가 가능하다”면서 “규정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대체선수 발탁은 없다”고 전했다.

승부 기운 뒤 지친 손흥민 투입...두둑한 신뢰? 불필요한 낭비?

B.뮌헨 원정서 1-3으로 지고 있던 후반 20분 교체투입

바이에른 뮌헨과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최종 6차전을 하루 앞둔 11일(이하 한국시간), 한국의 축구팬들은 토트넘의 SNS 계정에 올라온 소식을 보면서 답답함을 호소했다. 손흥민이 뮌헨으로 향하는 전세기에 오는 모습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경기는 결과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뮌헨은 5차전까지 전승을 기록해 1위 16강 진출을 매듭진 상태였고, 토트넘도 3승1무1패 승점 10으로 2위 조별리그 통과가 확정된 후였다.

때문에 모리뉴 감독도 일찌감치 로테이션 멤버를 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간판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을 비롯해 델레 알리, 안 베르통, 세르주 오리에는 아예

런던에 남았다. 그런데 언급한 이들 이상으로 에너지 소모가 컸던 손흥민은 원정길에 동행했으니 가뜰이나 혹사가 우려되던 상황에 아쉬움이 컸다.

토트넘이 내내 끌려갔던 경기다. 뮌헨은 이겨야 할 이유들이 있었다. 조별리그 전승이라는 상징적 고지도 탐이 났으나 무엇보다 최근 부진에서 벗어나야 했다.

전반 14분 코망의 선제골을 터뜨린 뮌헨은 6분 만에 토트넘 세세농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으나 전반 막판 팔라의 추가골로 다시 앞서 나갔다.

후반전 역시 뮌헨이 지배했다. 그리고 후반 19분 공격의 핵 쿠티뉴가 특유의 오른발 감아차기로 다시 토트넘 골문을 열면서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모리뉴는 실점 이후 교체카드 2장을 꺼내들었다. 로셀소를 빼고 스킵을 넣었고 모우리를 불러들이고 손흥민을 투입했다.

결과적으로 2골의 격차가 벌어졌는데 팀의 에이스급 공격지원 손흥민을 넣은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뮌헨전 직전까지, 토트넘은 모리뉴 감독 부임 후 5경기를 치렀는데 손흥민은 전 경기에 선발로 나섰다. 그러나 1일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후반 43분 교체 아웃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풀타임을 소화했다. 모리뉴 부임 직전에는 벤투호에 탑승해 중동에서 A매치 2연전을 다 뛰었다.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새로운 감독의 신뢰가 계속 쌓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읽힐 수 있으나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라는 생각도 떠돌 경기가 됐다.

명품하는 행복하군만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 임대정원림
- 연둔숲정미
- 김삿갓동산
- 오지호 기념관
- 조광조유배지
- 고인돌유적지
- 운주사